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2016 의료기관 인증 자체조사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후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자체인증조사를 실시했다.

18명으로 구성된 자체조사위원들은 지속적 질 향상 관리, 의약품 관리, 인적자원 관리, 감염 관리, 시설 및 환경안전, 의료정보, 의무기록 관리 부분의 시스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서류 검토 및 현장 개별 환자 추적조사와 경영진 인터뷰도 함께 시행했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 준수 여부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서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경영진은 안전과 질 관리를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등 여러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적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 잘 시행되고 있었다.

한편, 자체 조사 총 평회에서 오민구 병원장은 “이번 자체 평가에서 병원의 현 상태를 점검하였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여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2 공간정비를 위한 중견작가 작품 기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1월 3일 중견 작가 작품 10점을 기증 받았다. 2016년 병원 공간정비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홍익대 미대 주태석 교수 외 9명의 작가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아 병원 외래 공간에 전시했다.

동국대학교 태석기 의료원장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하며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게 됐다.”라며 작품을 기증하신 작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03 안전한 병원을 위한 초기화재 진압훈련 실시

시설관리팀은 2일 옥외 서편주차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내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을 시행했다.

간간이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훈련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화재 발생 시 전 교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다.

소방훈련은 초기 화재 진압 5분은 ‘골든타임’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 증가로 인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날 훈련에서는 소화기 사용방법에 관하여 직접 실습을 해보는 등 실전 훈련으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의 가장 가까이 있는 소화기와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환자과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



04 ‘마음의 감기 우울증’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는 11월 3일 일산동구보건소 주최 풍동 성당에서 건강 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7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의 감기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구 교수는 강좌에서 우울증이란 슬프거나 울적한 기분이 지나쳐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어 개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할 경우 무서운 질환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울증의 유병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가중되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적 우울증 치료방법으로 뇌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기를 보충해주는 치료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침구, 기공, 명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노인 우울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과 예방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고객의 소리

곳곳에 행복을 전해주는 하얀 천사

외래진료를 갈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무적인 말투, 무표정한 표정, 질문하면 잘라버리는 마무리에 눈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엄마의 눈 밑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피부과 외래를 찾았는데 박송이 간호사가 다가오며 “휠체어로 들어오시기 힘드시죠? 잠시만요”하며 휠체어를 조금씩 밀고 당기더니 본인이 직접 환자를 들어 침대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친절이 낯설고 불편했었는데 우리 모녀에게 누워계시면 곧 끝난다며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은 자기가 잘한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모녀는 간호사가 허리라도 다칠까봐 사양했으나 “어머니~ 50대로 예쁘게 되실 거예요. 건강하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꼬옥 잡아주셨습니다. 순간 온 마음에 온기가 느껴져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따뜻하고 눈같이 하얀 천사가 곳곳에 행복을 전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박송이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